

# 韓國建築概觀〈1〉

金壽根

## 1. 序

國際的인 흐름에서 보아 現代建築은 産業革命 以後 積極導入된 鐵 콘크리트·유리의 建築的, 工學的的可能性에 對한 檢證의 試圖的 段階를 지나 또 다른 未來의 可能性에 對한 挑戰의 時期에 當面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試圖의 段階에서 發生하였던 矛盾點, 非人間化에 對한 挑戰과 批判, 未來에 對한 提案속에서 昏迷한 追求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과 1971년의 韓國建築界의 概觀에 앞서 이와같은 時点에서 우리는 過然 무엇을 追求하여 왔으며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에 對해 우리 現代建築에 對한 土壤을 背景으로 간략히 더듬고져 하며 이것은 1970년과 71년 사이에 이루어진 우리들의 建築行爲 自體의 타당성에 對한 한 判斷資料를 提示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未來에 對한 한 準備가 될 것이다.

## II. 韓國現代建築의 背景

韓國現代建築의 根本的 出發點은 過去의 日本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自體內에서 胚胎, 生成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他國에서 輸入되어진 한 形式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形式이 우리의 內容과 어떻게 合一點을 가지며 定着되었으며 또 그 形式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먼저 問題가 될 것이다. 이것을 傳統的인 木骨造의 土石造建物を 根幹으로 하던 建築形式에 造積組와 같은 新構造가 導入되었던 朝鮮末葉을 始點으로 하여 日帝에 強占되었던 時期까지와 우리의 손으로 直接 建設에 임하게 된 解放後의 두 時期로 나누어 考察해 볼 수 있겠다.

### 1. 解放前

소위 現代의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建築物이 이 땅에 서게된 것은 1890년대를 前後해서 세워진 ① 外國人公館, ② 宣教師들에 依한 基督教關係 建物 및 學校

建物, ③ 庸役關係 또는 商業的 目的에서 들어온 外國人所有建物, ④ 其他 몇개의 住宅, 別莊, 會館등을 통해서 비롯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建物들의 거의 全部는 우리의 손에 依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外國人의 손을 빌린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土着性과는 無關하게 實施되었고, 그 後 日帝가 이루어 놓았던 거의 모든 建物도 日本建築의 現代化過程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盲目的인 西歐文化의 追從속에서 個性的인 造形의 創造나 새로운 人間環境의 創造이었다기 보다는 強要된 形式, 環境과의 調和를 망각한 질서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그 形式自體도 同時代 西歐社會가 지향하였던 바의 現代的인 眼目的의 것도 아니고 西歐古典의 鄉愁와 같은 復古主義的인 異質文化이었으므로 해서 民衆과 遊離된 時代精神을 떠난 建物이 서게될 風土와 無關한 또한 순수한 의미의 創作行爲와 無關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종래는 日本軍國主義와 植民地政策과 結托하므로써 이와같은 矛盾에서 脫出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時期의 韓國建築은 自意에 依하지 않는 他意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나마 歪曲되어진 現代性속에서 誤導되어진 結果일 뿐이다.

### 2. 解放後

極히 적은 몇몇 境遇를 除外하고 빼앗겼던 建築創作 分野를 되찾은 것은 日帝로부터의 解放以後라 할 것이다. 그러나 解放直後의 우리의 建築界現實은 日帝植民地政策의 一環인 技術教育의 制限으로 惹起된 技術者의 不足, 經濟的인 地반의 빈약에 따른 上公業의 不進, 民衆의 政治意識의 過剩에 따른 社會的 混亂, 現代化에 對한 適應力不足 등으로 제대로의 活動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現代建築의 土着化라든지 새로운 方向의 創造行爲 自體도 기대하기 어려운 時期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맞은 6.25動亂은 國土의 分斷이라는 悲劇과 아울러 그나마 移植된 文化가 存在하던 都市를 廢墟化 시키므로써 새로운 都市의 建設이라는 課題를

우리에게 넘겨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實驗을 통하여 體得되지 못한 技術, 새로운 現代建築에 對한 막연한 理解, 우리의 傳統으로 定立되지 못한 既存建築觀, 建設資材의 貧困, 等은 都市의 建設에, 建築의 創作活動에 混亂을 惹起시켰다, 經驗과 哲學이 없는 創造行爲는 模倣을 일삼게 되고 戰後의 增加된 建物需要는 消化도 덜된 外國作品의 歪流를 낳게 하였다. 1950年代까지의 국제 建築界는 現代메카니즘의 結果인 인터내셔널리즘이 거의 完成을 보고 이에 對한 批判이 臺頭되는 時期이었음에도 建築資材의 大量生産과 같은 産業의 뒷받침이 없이 段階를 뛰어넘어 이를 무모하게 模倣코저 試圖하는 誤診을 犯하였으며 戰後에 風靡되었던 外國에의 막연한 憧憬은 이를 부채질 하는 結果가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作業은 바탕이 不足한 우리 建築界로서는 過渡期的 試圖의 段階라고 할 수 있겠으나 創造의인 作業이었다기 보다는 역시 우리文化에 土着되기 以前의 移植의인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韓國의 建築界는 1960年代 初를 轉換點으로하여 비로소 安定된 基盤위에서 現代建築이 가져야 할 바의 問題意識을 갖기 始作하였으며 많은 創作活動이 이루어지기 始作하였다. 이와같은 狀況이 可能하게 된것은 1960年代 以前의 政治的, 社會的 混亂이 4.19와 5.16 革命을 通하여 극복되고 지속적인 安定은 經濟的인 成長을 가져와 有史以來의 建設붐을 맞이하였던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建築界는 비로소 現代建築의 問題點을 認識하고 外來의 現代建築의 形式을 우리의 것으로 定着시키고저하는 努力을 試圖하게되며 同時에 現代建築의 美意識이 一般大衆에까지 認識되어지므로써 다음 次元에의 追求가 可能하게 되어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代建築의 土着化過程 속에서 나타난 傳統의 問題는 外來된 形式의 生소함으로 困하여 많은 問題點을 惹起시켰으며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말았다. 極端의 傳統의 追求는 固有의 內的空間秩序를 의미한 外形의 追求를 일삼으므로써 現代性을 外面한 채 過去樣式의 답습에 이르는 誤導된 傳統의 追求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安易한 어프로치를 試圖케하였다. 1960年代中에 傳統에 對한 問題는 數次 심각하게 臺頭되었으나 어떤 意見의 定立을 보지 못한채 1970年代의 課題로 넘겨지고 말았다. 이와같은 現代建築의 土着化라는 努力에도 不拘하고 建築界의 基本主流는 여전히 어떤 創作에의 意志라기 보다 先進外國의 潮流를 無批判의으로 수입하고 消化도 덜된 채 그대로 轉寫하고 마는 作業을 繼續하므로써 建築主의 要求와 建築投資의 영세성으로 핑계지워진 값싼 콤포지트로서의 인터내셔널리즘에의 傾倒된 傾向은 結局 建築家 自身의 哲學貧困을 露出시키고 惡化되어가는 都市現狀을 유발시켰으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粗

惡한 環境에의 創造에로 나아가게하는 結果를 招來케 하였다. 都市의 現代性和 國家의 將來에 關한 비존없는 狀態에서 맞이한 5.16革命後의 經濟的 成長에 따른 都市의 急激한 膨脹과 復興은 必然的으로 심각한 都市問題를 誘發시켰고 建築家의 職能이 하나의 建物設計에서 都市의 問題에까지 갑자기 넓혀졌음을 새삼 實感케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現代化의 물결 속에서 對備없는 建築界는 모든 都市問題의 解決에서 발언권을 都市의 行政家와 피지칼한 都市計劃家에 넘겨준 結果가 되었으며 따라서 土木의 어프로치의 都市計劃은 物量的 側面에 傾倒된 都市問題의 解決에 치우치게되므로써 都市景觀의 破壞, 都市美의 破壞, 傳統의 都市環境의 破壞, 또한 都市公害를 유발하게 되는 한 原因이 되었다. 이와같은 現狀은 60年代來의 한 두드러진 傾向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에 對한 行政家의 理解와 建築家의 參與意識이 缺如된 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課題로서 남겨지게 되었다. 60年代의 過程중에서 또하나의 問題로서 의식되어야 할 것은 都市의 皮膚를 構成하고 있는 材料의 問題일 것이다. 都市의 膨脹에 따른 建築物表面積의 增加와 이를 被覆키 위한 材料의 貧困은 建物投資의 영세성으로해서 값싼 低質의 타일의 氾濫을 한동안 유발하였고 工業化의 진전에 따른 水泥의 量産은 60年代初의 몇개의 作品을 그 例로해서 콘크리트 露出面을 갖는 外觀의 氾濫을 가져오게 하므로써 都市를 콘크리트 文化속에 파묻히게 하여 結局 한面에서 既存都市의 環境을 破壞하는데 先導의 役割을 하게 되었다는 點일 것이다. 이것은 隣近 日本의 建築이 戰後의 급작스러운 復舊事業의 한 方便으로서 水泥에 依한 建築文化를 試圖하였음에 影響받은 한 證據로서도 말하여 질 수 있겠고 또 이의 彫塑의 性格에 따른 傳統造形의 再現可能性에 對한 期待와 그 經濟性으로서 유발되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結果的으로 都市自體를 無氣味한 콘크리트의 스펀지로 化하게 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建物의 皮膚材料에 對한 傳統性의 問題와 이에 對한 態度 및 우리 風土에 適合한 材料의 開發은 또하나 남겨진 앞으로의 課題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狀況속에서 結論的으로 말하여질 수 있는것은 結局 建築에 任하는 作家의 態도의 問題와 이를 뒷받침하는 哲學의 定立에 關한 問題일 것이며 이것만이 外來된 現代建築을 우리의 環境에 適應시킬 수 있는 길이고 또 建築을 새로운 人間環境의 創造에로 또 한 높은 次元의 藝術的行爲에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1960年代의 한국건축계를 돌아 볼 때 現代建築의 年輪이 짧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努力이 傾注되었던 最初의 時期로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試圖과 失敗속에서 지나가야만 하였던 초기의 修鍊期를 거쳤다고 본다.

따라서 이 時期에 나타났던 여러 矛盾點은 분명 韓國建築界의 共同的 矛盾으로서 다음의 時期가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運命 지워진 것이며 이의 해결을 爲해서 모든 建築家는 自身の 資質을 向上시키고져 하는 모든 努力과 哲學을 確立시키고져 하는 活潑한 움직임, 正當한 批評精神의 確立, 社會的 地位向上을 爲한 相互間의 不斷한 努力, 또한 다음의 世代를 爲한 올바른 教育에 努力을 傾注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社會를 說得하고 社會에 正當히 參與하며 自我確立과 새로운 創造에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시야를 점차 넓혀 세계의 舞臺로 뛰어 나갈 수 있는 포부와 自信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現代建築을 돌아 보건대 비교적 짧은 時期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짧은 期間으로서는 그 동안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甚한 問題들을 너무나 많이 가졌음에도 不拘하고 점차 現代에 對한 理解와 우리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努力과 諸分野에 있어서의 技術의 向上等에서 어느 정도 樂觀의 일 수 있는 現狀을 發見할 수 있으며 同時에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問題點들을 또한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Ⅲ. 1970年 및 1971年의 建築動向

#### 1. 概觀

國家의 經濟事情과 政策의 影響下에 피치못하게 놓여있는 建築界의 作品活動은 1960年代의 急激한 經濟成長과 建物の 社會的需要的 激增에 따른 的인 活動과는 달리 1970年 下半期 부터 到來한 經濟的 不況으로 沈滯을 면치 못하게 되고 建設業 또한 71年度에는 建國以來 처음으로 -7%라는(東亞年鑑1972, p. 422) 負의 成長을 記錄하게 되므로서 意慾이 沈滯된 狀態에서 脫出을 模索하고 있는 現狀을 빚고 있다. 따라서 1970年代의 初頭를 意慾으로 裝飾했어야 할 建築界는 大略 1960年代末에 計劃되어 졌던 事業의 完結이라는 時點에서 一旦 머무르고 오히려 60年代의 과잉意慾 狀態속에서 急激히 增加된 社會的 需要的 充足에만 汲汲한 나머지 犯했던 誤謬 때문에 苦痛을 받게되는 어려운 立場에 軋하게 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誤謬는 結局 前項에서 言及되었던 바의 哲學的 또는 未來에 對한 比觀의 設定이 없는 임기응변式인 諸問題의 解決態度에서 必然의 結果로 연유되어진 것이며 이와같은 現狀은 國土의 여기저기에서 무수히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살기 좋은 70年代를 建設하기 爲하여 또 한번 이러한 狀況을 直視, 分析評價하고 脫출을 準備해야 할 時點에 서게되었다고 생각된다.

#### 2. 國土·都市의 諸般 問題

國土的 스케일에서의 70年의 가장 에포크·메이킹한 事件은 着工 2年半餘만에 完工을 본 京釜高速 道路의 建設일 것이다. 이것은 그 建設目的과 建設方法, 着工 時期의 妥當性 與否와 그 波及效果에 對하여 肯定과 否定的인 反應이 엇갈린채 完工을 본것으로서 어떠한 우리 民族의 손으로 이루어진 最初의 그리고 最大의 役事였다고 할 것이다.

70年과 71년에는 잇달아 潮南高速道路가 一部 完成되고 嶺東高速道路가 着工 一部完成되었으며 南海高速道路가 着工되므로서 現代文明의 產物인 自動車에 依한 高速化로서 全國을 一日 生活圈化하고 地方産業을 育成, 發展시키겠다는 意志의 表現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根本意義와 派生되어진 結果에 對하여는 또다른 次元에서 論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하나 71년에 되어진 것으로서 意義있는 일은 建設部가 作成發表한 國土綜合開發計劃의 完成일 것이다. 이것은 그 內容의 適切與否를 論外로하고 그간 施行되어온 政策의 無計劃性에서의 脫皮를 意味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國土單位의 大規模事業에 맞추어 都市分野에서도 많은 大單位事業이 施行되었다. 이러한 事業들의 그 重要內容은 大略 大都市에 過密集되는 人口現狀에서 빚어진 住居不足現狀을 타개하려는 努力, 또 이와 같이 過密集된 都市人口를 都市外로 分散시키고져하는 都市計劃의 努力, 都市內에 일어나는 交通問題의 解決을 爲한 努力 등이 그 主流를 이루는 것이었다 하겠다.

이러한 問題들 중에서 먼저 論議가 되어야 하는 것이 都市住居 問題의 解決에서 惹起되는 諸般問題이다. 이것은 특히 巨大化都市에 對한 輻輳하고 있는 서울을 例로들어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 당초 서울은 그 立地條件에서 보아 自然地勢에 限定을 갖고 있는 傳來의 文化遺産을 간직한 古都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또한 他都市와 달리 政治, 文化, 經濟, 教育 등에 對한 複合的 機能과 中樞的 機能을 獨占의 地位로 갖고 있기 때문에 最近에 나타난 급작스러운 經濟的成長은 급작스러운 都市機能의 膨脹을 가져오고 따라서 都市人口의 急激한 增加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增加된 人口를 수용하기에는 既存施設이 不足되고 限定된 自然條件은 都市의 郊外에로의 스프롤(sprawling) 現狀을 가져왔으며 심각한 住居難은 都市周邊山麓의 판자촌 占據라는 現狀을 誘發하였다. 따라서 既存自然은 파괴되기 시작되었으며 都市의 景觀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판자村으로 오염된 自然을 回復시키고 또 심각한 住宅難을 解決하기 爲한 한 方策으로서 試圖되어진 것이 高地帶의 高層市民아파-트群이었으며 이는 60年代末에서 70年代 初에 걸친 市事業의 重要한 部分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占據에 對한 既存狀況을 認定하고 汚染된 環境을 改善하겠다는 點에서 어느정도 妥當性을 지닌 것이었으나 그 拙速한 實施內容에서 計劃의 不合理性, 디자인의 不在現狀은 結局 施設物內容의 不備, 設備의 不在, 또한 自然環境의 또다른 形態의 파괴라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都市의 스카이라인 (skyline)을 또다시 망치는 結果가 되었다. 이것은 目的하였던 바의 스텝크리어런스 (slum clearance)가 아닌 또하나의 스텝크리에이션 (slum creation)이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現狀은 高地에서 만의 問題가 아니고 청계천 沿邊을 따라 뻗어나간 아파-트群이나 其他 都市再開發事業으로서 나타난 아파-트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內容의 責任은 都市計劃을 하는 사람만의 것 만도 아니고 이것을 對하는 設計者, 施工者에게도 있다 할 것이다. 1970年 4월 8일에 일어난 『와우 아파-트』의 倒壞事件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衝擊的인 것이었다.

不實한 施工, 誠實치 못한 監理者는 結局 數十餘名의 人命損失을 招來하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確實히 해야할 點은 人間이 살집에 對해서 拙速이 있을 수 없으며 날림工事가 있을 수 없고 또 當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은 計劃性있게 차근차근 지어 가야 한다는 事實이다. 어떠한 理由에서든 날림의 風土가 施工主나 建設業者에 一般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人間을 否定하는 悲劇이 될 것이다.

1971年 12月 25일에 일어난 大然閣 호텔의 大火災에 依한 慘事는 이와같은 風土가 拂拭되지 못하였음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經濟의 理由나 材料, 技術의 不足을 탓하기에 앞서 人間尊重이라는 點을 깊이 명심해야만 한다. 그것은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큰 建物에서나 작은 建物에서나 커다란 國土의 問題에서나 한개의 都市의 問題에서나 다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狀況은 中産層을 爲해서 지어진 低地의 아파-트群에서도 자주 보여진다. 서울市와 住宅公社 또한 民間企業者들은 中産層 庶民과 公務員을 爲해서 漢江邊과 汝矣島 等地에 많은 아파-트群을 建立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内部設備의 未備로 지어진 한해 겨울을 넘기기 前에 設備系統에 一部 마비를 가져왔으며 大單位 아파-트群이 갖추어야 할 公共施設이 大部分 不足된 채로 完成을 보아가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의 問題에서 또한 指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庶民住宅의 建立을 目的으로 設立된 住宅公社의 高所得層과 外國人을 爲한 맨손 아파-트의 建設에 對

한 問題이다. 勿論 社運營에 따른 經濟的인 問題가 그 理由가 될 수도 있겠으나 低所得層의 庶民을 爲한 住宅問題의 解決이라는 本然의 姿勢로 돌아가야 될 것이며 또 기왕에 建設된 建物の 墮地의 選定에 있어서나 또는 그 造形의 처리에 있어서 適切을 期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即 모든 立地條件이 잘 갖추어진 漢江邊과 같은 低地를 高所得層에 내어주고 建設, 交通 또는 衛生設備을 하는데 高價로 먹히는 周邊高地에 低所得層의 아파-트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矛盾으로 생각되며 또 高地에 세워지는 南山 맨손아파-트와 같은 境遇 그 巨大한 建物の 매스로서 既存自然을 都市民의 視線으로부터 遮斷시킨다는 것도 또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住居問題의 解決과 並行해서 都市人口의 郊外地區에로의 分散과 都市膨脹의 억제에 對한 努力이 있었다. 이를 爲해 都市周邊交通網의 整備, 都市周邊의 住宅團地 및 其他團地의 開發, 그린벨트의 設定과 같은 事業이 進行되었다. 그 하나의 例로서 서울市는 漢江以南의 開發計劃을 樹立하고 南서울 베드타운을 實施하기 爲하여 많은 宅地造成事業을 行하였으며 都市民의 移居를 爲하여 各種公共機關을 이 地域으로 移動하겠다는 公約을 내세웠다. 그러나 結局 이러한 公約이 施行되지 못했으므로 해서 數年間 土地부록들에 依한 地價양등만을 가져왔을뿐 住民의 移植은 끝내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努力의 또한 例로서 서울周邊의 工業團地로서 開發되어 都市內의 各種撤去民을 수용하게 된 廣州團地의 境遇 그 明確하지 못한 目標意識과 不誠實했던 管理로 말미암아 結局 71年 8月의 廣州團地 騷擾같은 事件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같은 事態는 都市住居의 解決에서 보여진 矛盾性의 한 連續이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그린벨트의 設定에서도 보여진다. 即 都市의 緣地造成과 都市膨脹의 억제策으로 導入된 이 方式은 이미 先進外國의 既存大都市에서 施行되어온 것으로서 이에 對한 對策이 이미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때늦게 施行하게 되므로서 이 地域에 包含되는 많은 住民에게 財産上의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避할 수도 있는 問題였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都市事業分野에서 交通關係는 많은 進展을 보았다. 우선 南漢江 地域의 開發과 高速道路의 開通에 따른 都心交通의 圓滑한 擴散이라는 點에서 南山의 터널이 70年初에 開通되고 그간 開發을 서둘러온 汝矣島와 서울의 中心을 잇는 서울大橋가 開通되었으며 서울市가 그간 繼續 推進해오던 漢江邊의 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江邊 4路의 開通을 보았다. 그러나 漢江邊路의 道路問題는 都市交通의 圓滑化라는 問題의 解決이 되겠다고 하겠으나 市民의 리크레이션에리야로 남겨져야할 漢江을 高速을 要하는 車道로서 막아 버리고 江岸으로 나가는 步道를

遮斷해 버린다는 計劃上의 矛盾은 再考되어야 할 問題로 남는다. 1971年 4월 12日 서울市廳 앞 廣場에서 着工된 서울 地下鐵 第1號線 起工式은 巨大化되어 가는 都市에서 惹起되는 交通混亂에 對한 解決策으로서 우리들의 많은 關心을 集中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交通問題의 解決을 路面交通手段에 依해 해결하려고 努力해온 우리로서는 地下鐵에 對해 그간 많이 論議도 해 왔고 또 기대를 가져 왔으므로 환영할 바이나 高速化된 地下鐵이 갖는 여러가지 問題點, 即 高速化 때문에 停車場의 거리가 멀어 지게되므로 市內의 路面交通手段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또는 都心으로 集中되는 人口를 어떻게 적절히 수용하여야 하는가, 어두운 地下속에서 일어나는 都市民의 精神的, 心理的인 反應을 어떻게 콘트롤 해야 할 것인가 等等에 對한 問題들이 此際에 심각하게 論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都市의 問題는 其他, 不足되는 給排水施設, 土地의 零細性에 따른 都市內의 公園, 綠番의 不足, 自然環境의 不在, 各種 內燃機關에 依해서 일어나는 騒音, 煤煙等에 依한 都市公害, 不足되는 都心の 駐車場 또는 各種 工場群과 汚物, 汚水處理場의 不在로 일어나는 河川과 大氣의 汚染等等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問題들을 內包한 채 또 다음해의 課題로서 남겨지게 되었다.

### 3. 建築統計上에서 본 問題點

1970년과 1971년의 두해동안 우리는 어떤種類의 建物を 얼마나 세웠는가 하는 것은 建設部에서 集計한 全國建築許可統計를 通하여 살펴 볼 수 있겠다. 이表는 勿論 建築許可의 統計이므로 그 建물이 다 지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나, 이것은 分明 어떻게 짓겠다는 意圖가 表現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建築物需要에 對한 一般的 趨勢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上記表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선 建築活動의 一般的인 低調現狀이며 이것은 前項에서도 言及된 바와 같이 70年, 71년에 걸친 經濟, 建設分野의 一般的인 現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注目하여야 할 點은 우리들의 努力의 大部分이 近年의 經濟的 急成長에 따른 商業이나 工場의 建築, 또는 都市人口의 急增에 따른 住居問題 등의 物質的, 數量的 解決에 集中되어 있었으며 우리들의 精神 文化向上을 圖謀할 公共施設이나 文教, 社會施設에의 投資가 不足했지 않나하는 點일 것이다. 이것을 1971年度의 建築延面積比에서 본다면 住居:工業:文教:社會用 建築物이 大略 4.8:1.5:1:0.56程度가 되므로 文教, 社會用 建築物에서도 學校, 官公署, 病院 등의 特殊한 境遇를 除外한다고 한다면 一般大衆의 文化活動, 大衆의 教育에 寄與할 수 있었던 建물이 얼마나 많이 建設되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

## 用途別建築許可統計

연면적: m<sup>2</sup>

用途別	年度別 区分	'70	'71	前年對比 (%)
住居用	件數	80,956	76,716	94.7
	延面積	5,885,144	5,594,301	95.0
商業用	件數	7,350	7,942	108.1
	延面積	2,008,737	1,787,333	88.9
工業用	件數	2,002	1,801	89.9
	延面積	1,528,972	1,163,735	76.1
文教 社會用	件數	1,200	1,137	94.7
	延面積	790,853	655,555	82.9
其他	件數	1,401	1,516	108.2
	延面積	572,901	418,382	73.0
合計	件數	92,909	89,112	95.9
	延面積	10,786,607	9,619,306	89.1

\* 建築士 1972. 3 大韓建築士協會 p. 71

\* 註: 住居用: 住宅, 共同住宅, 住宅併用 점포.

商業用: 銀行, 事務所, 店舖, 旅館, 宿泊所, 음식점, 倉庫, 市場, 浴湯, 劇場, 車庫, 危險物貯藏庫

工業用: 工場

文教·社會用: 學校, 官公署, 病院, 教會

其他: 畜舍, 哨所, 公衆便所, 注油所, 屠殺場, 火葬場

다. 現代에 있어서 經濟分野의 눈부신 發展에 따라 工場이나 事務所와 같은 商業建築物이 大量 必要하게 되고 또 이의 우선적 建設이 勿論 重要的 問題로 台頭되나 이와같은 經濟的 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教育이나 各種情報의 交換이 重要視되고 또 大衆을 爲한 休息과 文化創造의 場이 必要하다 할 것이며, 이 教育의 問題에 있어서도 靑少年 教育뿐만 아니라 哲學的 混亂을 빚고 있는 現實에서 大衆의 教育도 問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現實적으로 急先務의 解決에 치우치는 것은 어느時点에서는 옳은 일이라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基礎分野가 튼튼히 쌓여지고 또 서로 平衡있는 發展을 해나가므로서 國家의 百年大計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大衆文化의 向上을 이루기 爲해서 이 分野의 많은 投資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建築行爲가 이루어질 것이 期待된다.

### 4. 建築活動

1970년과 1971년의 한 두드러진 現狀으로서 1960年

代末에서부터 繼續되는 都心에서의 建築物의 高層化 傾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勿論 急速한 經濟 成長에 따르는 社会的 需要에 副應한 한 現狀이 라고 할 것이나 工業的 뒷받침이 不足되고 또 이에 對한 適切한 經驗이 不足되는 現實속에서 社会的으로 또는 建築的으로 많은 問題點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 한例가 1970年 3월에 改正을 본 建築法施行令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結局 이러한 現狀에서 나타나는 矛盾點을 法的으로 解決하고자 하는 한 努力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法的인 問題點 이외에도 建築的인 面에서 많은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한 例가 우리의 高질병처럼 되어 있는 外來思潮의 無批判的인 輸入態度이며 또한 값싼 컴머서리즘과의 野合이라고 생각된다. 勿論 70年과 71年사이에 세워진 大部分의 建物들이 우리가 準備도 갖추지 못한 60年代에 計劃되고 또 세워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大部分의 建築物에서 이러한 現狀을 發見하게 된다는 것은 創造者로서의 立場에선 建築家의 姿勢로서는 理解하기 困難한 일이다. 經濟的 成長에 따른 工業化가 進行되고 또 規格化한 各種 建築資材를 工場生産品으로 가지게 된 지금에 와서 우리는 所謂 現代의 建築物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事實은 무척 반가운 일이나 現代建築이 指向하는 바가 工業이나 機械化함으로써 疏外당해가는 人間性的 回復 이라는 事實을 알고 있는 지금 1950年代에 實驗을 끝마친 인터내쇼날리즘의 殘骸를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座標가 混沌되어 있다는 事實을 端的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1970年과 71年을 通한 建築界의 全般的인 所得은 技術工學的인 面에서의 새로운 工法, 例를 든다면 建築 構造에서의 鉄骨, 카텐월 方式의 導入이라던지 스틸폼施工法같은 몇가지의 既存 方式를 試圖해 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創作分野는 몇 小品 또는 住宅들을 제하고 그 지어진 숫자에 比하여 比較的 低調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建築活動을 1970年과 1971년에 完工된 建物를 中心으로 살펴보자.

우선 1970년에 들어와 完工되어진 것으로 먼저 各種 호텔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월에 朝鮮호텔이 開館되었으며 또 로얄호텔이 개관되었고, 國際保險株式會社와 同一 빌딩에 들어간 도큐호텔이 開館되었다. 앞의 두 경우는 모두 外國人 技術者에 依해 設計되어진 케이스로서 經營組織上의 問題도 있었겠지만 外國技術의 無條件信賴속에서 되어진 것이라 하겠으며 結果的으로 우리의 風土와 無關한 異常한 國際主義 商業主義 樣式이 되어 버렸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各種 庁舍建物로서 12월에 完成된 政府綜合庁舍를 비롯하여 勞動庁庁舍, 調達庁庁舍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前者의

政府綜合庁舍도 朝鮮호텔의 境遇와 같은 말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이 各種 事務所 建築으로서 三一路빌딩, 수유회관을 비롯하여 三柱, 大一, 성보, 삼구, 太陽, 남강, 삼운, 한진고속버스 터미널등 많은 建物이 이 時期에 完工되었다. 여기에서 言及될 수 있는것은 三一路빌딩일 것이며 커튼월方式과 鉄骨 構造에 依한 完全한 國際主義樣式을 처음으로 이룸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影響力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 現實的으로 그와같은 現狀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形式自体가 우리의 風土와 融和될 수 있을런지에 對해서는 아직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其他의 建物들로서는 南山의 어린이會館, 東大門 綜合商街, 코스모스百貨點等을 들 수 있고 또 처음에는 慶會樓와 같은 傳統造形物을 가지고 參加키로 決定되었다가 다시 現代의 애브스트라트 아트로 바뀌어 世界建築舞台에 參加할 수 있었던 오사카 EXPO'70의 韓國館을 들 수 있고 또 其他의 프로젝트로서는 年初에 移轉計劃이 樹立되어 型地를 官斂산으로 決定하게 된 서울大學校 마스터플랜 作業이 있었다.

1971년에 完工된 建物로는 먼저 庁舍 建物로서 家庭法院, 감사원等을 들 수 있고, 事務所建物로서 東和빌딩, 自動車保險, 배재빌딩, 세브란스, 아트센타, 센타빌딩, 朝鮮日報社, 救世軍會館 等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 國際主義樣式系統의 惰性的 作業의 一貫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1年度에는 많은 아파-트群이 完工되었다. 우선 여의도 아파-트群, 가든타워, 한강 맨손, 연희 맨손 아파-트 및 其他 市營, 民營 아파-트群이 建立되었다.

이제 아파-트에 依한 住居解決問題는 普遍的으로 받아들여 지는것 같이 보이거나 여전히 그 計劃上에서 建物內容의 問題와 生活과 建築 또는 公共의 場과 建築群과 關係에서 解決해야될 問題點이 너무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같다.

其他의 建物들로서 各銀行의 支店들과 뉴-내자호텔, 아리랑百貨店等이 보여지나 뚜렷한 性格을 보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都心에 조그맣게 남은 公園을 차지한 百貨店의 境遇는 都市計劃的인 點에서 問題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建物造形問題로 많은 論議를 일으켰던 扶余博物館이 細部 디테일을 修正하고 겨우 完成되었으나 全体形態를 바꾸지는 못한채 71年 9월에 開館을 보았다. 其他 外國人의 設計에 依한 建物로서 日本大使館을 들 수 있으며 一般住宅으로는 日本人技士에 依한 S氏邸宅이 있다. 近年에 들어서 이러한 外國人의 進出은 상당히 增加된 現狀을

보여주고 있다. 其他 各種 學校建物로서 各大學의 校舎를 中心으로한 大規模建築이 活潑히 進行 되었으며 住宅分野에서도 오히려 一般商業建築과 公共建築에서 期待키 어려운 自由스러운 造形과 建築的 試圖가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는 現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建築創造活動以外的 分野로서 우리가 關心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民族遺産의 保護와 繼承이라는 點에서 擡頭되어진 古建築의 復元과 補修 作業이다. 1970年 3月에 發表되어진 民族5大遺産의 復元計劃은 잇달아 古都와 古蹟에 對한 整備作業이 뒤 따르게 되고 이의 施行過程에서 補修와 保存에 對한 錯誤가 생기므로해서 問題들이 發生하였다. 例를 들자면 古建物에의 맹목적인 丹青이라든가 現代材料에 依한 補修라든가, 既存道路의 지나친 擴張으로서 自然의 景觀自体를 現代의 메카니즘에 맞추고져 하는 피지칼 어프로치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古都의 霧靄氣에 調和를 이룬다는 目的下的 現代의 材料에 依한 古建築의 完全한 再現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例는 분명 補修와 保存에 對한 錯覺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은 古都의 保存이 아니라 오히려 破壞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1970年 7月의 慶州 國立博物館에 對한 論難은 必然的인 것이었으나 이와같은 狀況이 其他 古蹟의 補修, 整備作業에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現時點에서 이에 對한 專門建築人의 많은 參與 意識이 切實히 要求되어 진다.

1970年과 1971년에 있어서의 建築人의 作品을 通한 對社會 活動과 對外 活動은 限界性과 可能性속에서 明暗 지워졌다고 생각된다. 우선 既成作家의 作品上的 發言場이기도 하고 또한 新人의 登龍門이기도 한 國展에서 70년에 建築과 寫真分野가 逸脫된 것은 國展內의 體質改善의 一環으로서 받아들여지고 71년에 하나의 獨立展 形式으로 寫真分野와 함께 文化公報部主催, 建築, 寫真展으로 出發하게 된 것은 차라리 獨自的 發展을 爲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나아 가서는 官展의 形式에서 民展으로 體質改善하므로써 自發的이고 獨自的인 發展을 圖謀할 수 있는 길을 열 意思로 感과할 수 있다.

또한 對話의 廣場으로서 이러한 展覽會를 存統시키고 키워나가기 爲해서는 既成作家, 一般新人의 創造에의 不斷한 努力이 要求되어지며, 從前의 一般傾向으로서 보여지던 忌避 現狀에서 벗어나 積極的으로 이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다. 國展 이외의 建築作品展은 例年에 比해 比較的 不振하였다 할 것이며 各大學의 定期展 小數의 學生 그룹展이 小數있었을 뿐이고 既成人으로서 새로운 作品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各自의 지금까지의 活動을 寫真으로 담은 金重業, 金壽根 建築展이 各各 10月과 8月에 있었다.

1971年中에 韓國의 建築이 世界舞臺로 進出을 祈한 것은 처음으로 빠리의 보브르文化세타의 國際 懸賞競技設計에의 參加이며 이를 爲해 國內에서 1人의 応募가 있었고 또 71年 12月末의 탄자니아 共和國의 政府 庁舎 國際懸賞競技設計를 爲해서는 2人의 応募가 있었다. 모두 좋은 成果는 거두지 못했으나 國外에로 눈을 돌리려는 努力의 一端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1971年中에는 두가지의 國際行事에의 參與가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6月 22日의 建築學會의 國際建築 硏究會 議(CIB)의 정식加入이며 또 하나는 6月 5日 美國 建築家協會 하와이支部가 太平洋地域建築家 1人에 수여하는 汎太平洋建築賞이 韓國의 建築家에게 돌아온 것이다.

#### IV. 結

1970年과 1971年의 韓國建築界를 돌아볼 때 現代建築의 比較的 짧은 歷史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土着化시키려는 不斷한 努力속에서 이러한 努力들이 이제 막 어떤 結實을 보게되고 또 어느程度의 基礎를 갖추게 된 時期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60年代에 있어서의 國家的, 經濟的 成長에 따른 부푼꿈 속에서 막연하게나마 現代建築의 모든 可能性에 對하여 期待를 걸고 이에 挑戰하였다고 생각하나 結局 現代 建築의 모든 習作을 가진 程度에서 머물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問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러한 問題意識속에서 또한 山積된 解決을 하지 않으면 안될 問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또 未來를 計劃하고 準備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는 現實을 反芻하므로써 可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點들을 念頭에 두고 이 作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 建築哲學을 定立하고져 하는 努力
2. 建築批判精神의 確立과 討論의 場의 形成
3. 社會的 職分의 確立과 地位의 向上을 爲한 個人 및 相互間의 協力
4. 社會의 說得과 參與
5. 建築教育에 對한 努力
6. 技術的 水準向上과 世界進出에의 努力
7. 우리 傳統에 對한 反芻
8. 새로운 材料 및 構造技術의 開發에 對한 努力

(筆者: 建築家)